

# Trend Report October 10

# 10월 트렌드리포트

10월의 트렌드 리포트에서는 지평트에서 발행된 미래시장2020보고서를 통해 유망 미래산업을 짚어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 위기상황에서는 미래의 가능성 있는 시장을 먼저 간파하고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고서에서 미래유망산업으로 지목된 재생가능 자원과 스마트 소재 산업은 디자인계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미 옥수수전문이나 야자수 잎을 이용한 용기들이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친환경 디자인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체온이 올라가면 색이 변하는 스마트의류 등 소재의 활용에서도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필요 시 되고 있다. 디자인 나무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디자이너의 역할’을 상기시킬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콘크리트 천을 이용해 단시간에 방화, 방탄, 방수가 가능한 텐트 또는 방공호를 만들 수 있는 신소재의 개발소식은 디자이너에게 단지 이 스마트 소재가 군용텐트에 사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에서 혁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버려진 후 3주 안에 바이오매스로 전환되는 소재, 패키징 및 주거용 고도방열재, 태양열 셀이 입혀진 호일, 자가세척 및 치유능력을 지닌 머드가드 등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스마트소재의 출시에 디자이너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10월 트렌드 리포트 주요기사]

### • 기업의 새로운 브랜딩/마케팅 전략 :

이보크(Evoque) 출시 기념 전시: 레인지로버(Range Rover)와 예술의 결합  
리바이스(Levi's) 팝업 워크숍: 지역공동체와의 콜라보레이션  
토요타 ‘프리우스’, 브랜드로 승격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도쿄의 은행

### •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노력 :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정용 연료로 변환시키는 블레스트 머신(Blest Machine)  
건축가의 핸드백 질라(Zilla) 2011 봄/여름 컬렉션

###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

개발도상국의 고층을 해결해주는 비영리 디자인기업 캐터펄트(Catapult)  
임산부를 위한 IDEO의 팔찌

### • 기술혁신을 통한 신소재/신제품 개발 :

인스턴트 방공호 콘크리트 캔버스 쉘터(CCS) 출시  
X-mini 캡슐 스피커: 하이 파이 사운드를 구현하는 접이식 휴대용 스피커

### • 웹이 만드는 새로운 사용자경험 :

손쉽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규 웹사이트 ‘웬더플라이(Wanderfly)’  
트위터(twitter), 트윗(tweet)과 리트윗(retweet)

본 리포트는 지식경제부 ‘디자인전략정보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디자인트렌드 정보를 월간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의 ‘디자인트렌드 전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Trend Report \_ 10

## 1. Design Now

- 이보크(Evoque) 출시 기념 전시: 레인지로버(Range Rover)와 예술의 결합
- 트위터(Twitter), 트윗(tweet)과 리트윗(retweet)
- 건축가의 핸드백 질라(Zilla) 2011 봄/여름 컬렉션
-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도쿄의 은행
- 리바이스(Levi's) 팝업 워크숍: 지역공동체와의 콜라보레이션
- 인스턴트 방공호 콘크리트 캔버스 쉘터(CCS) 출시
- 토요타 '프리우스' , 브랜드로 승격
- 개발도상국의 고층을 해결해주는 비영리 디자인기업 캐터펄트(Catapult)
- X-mini 캡슐 스피커: 하이 파이 사운드를 구현하는 접이식 휴대용 스피커
- 손쉽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규 웹사이트 '웬더플라이(Wanderfly)'
- 임산부를 위한 IDEO의 팔찌
-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정용 연료로 변환시키는 블레스트 머신(Blest Machine)

## 2. Trend Briefing

- 미래시장 2020

## 3. Design Inside

- 런던디자인페스티벌 2010

## 이보크(Evoque) 출시 기념 전시: 레인지로버(Range Rover)와 예술의 결합

2010.10.05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자동차 제조업체 랜드로버(Land Rover)의 레인지로버(Range Rover) 브랜드는 새로운 프리미엄 컴팩트 SUV 이보크(Evoque)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유명한 파리 예술가들과 함께 시내 곳곳의 거리에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이색 이벤트를 개최했다.

참여 작가는 캐릭터 Mr. A(Monsieur A)를 탄생시킨 예술가 앙드레(André), 패션 브랜드 JC/DC의 장 샤를 드 카스텔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서페이스 투 에어(Surface To Air), 영국의 럭셔리 카 &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인터섹션(intersection)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요르고 투플라(Yorgo Touplas), 이상 4명이다.

이들은 이보크를 본딴 형태의 철사로 이루어진 조형물을 제작하여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 팔레 드 도쿄(Musée Palais de Tokyo) 등 파리의 상징적 명소에 설치했다. 이 조형물들은 파리 패션 위크 개최 기간인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랜드로버(Land Rover) 사의 디자인 디렉터 제리 맥고번(Gerry McGovern)은 “레인지로버의 이보크는 창의적이고 도회적인 고객들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다”라며 “파리는 이보크를 볼 수 있는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며, 이보크의 도시적 감성을 나타내는 이 독특한 설치물들을 통해 이보크의 탄생을 각인시키고 싶다”라고 말했다.



© 앙드레(André)



© JC/DC



© 서페이스 투 에어(Surface To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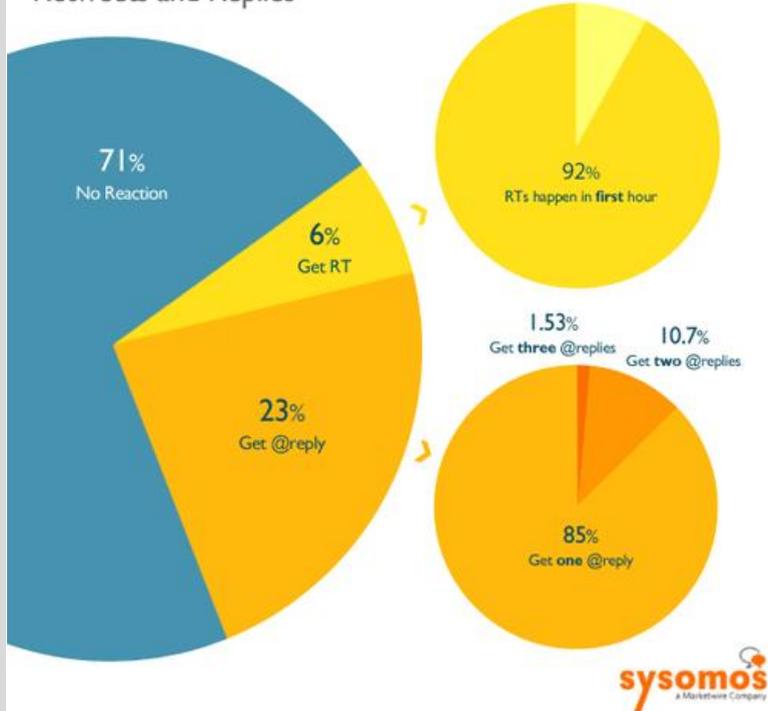


© 요르고 투플라(Yorgo Touplas)

## 트위터(Twitter), 트윗(tweet)과 리트윗(retweet)

2010.10.06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 Retweets and Replies



트위터(Tweeter)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력한 힘 중 하나인 리트윗(\*RT, Retweet: 다른 사람의 글을 전달하고 추천하는 기능)은 마이크로 블로깅(micro-blogging) 세계에서 글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분석 전문기업 '시소모스(Sysomos)'가 지난 두 달 간 12억 개의 트위터 게시물을 조사하여 얻은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트위터의 전체 글 중 단지 6%만이 리트윗될 뿐이며, 약 23% 정도에 댓글이 남겨지고, 71%라는 대부분의 글은 그저 개인 트위터 계정에 쌓이기만 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92%의 리트윗이 글이 올라온 지 한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빈도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시소모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트윗(\*Tweet: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과 그것의 리트윗을 인포그래픽 영상으로 시각화한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

<http://www.designtaxi.com/news/33082/Infographic-For-Tweets-Not-Many-Get-Engaged-With/?page=1>

< 트윗에 대한 리트윗(RT)과 댓글(@reply) 분석도표. ©sysomos

via TAXI

## Design Now 03 Market trend

## 건축가의 핸드백 질라(Zilla) 2011 봄/여름 컬렉션

2010.10.07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질라의 2011 봄/여름 컬렉션. 출처:Cool Hunting

이탈리아의 젊은 건축가 실비아 피클레르(Sylvia Pichler)는 초고층 빌딩만큼이나 핸드백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피클레르는 잡화 브랜드 질라(Zilla)를 런칭, 산업자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핸드백들을 출시하고 있다. 그녀는 단열재나 실내장식, 공기정화장치 등에 사용되는 소재들을 이용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아한 핸드백을 만들어낸다. 질라의 2011년 봄/여름 컬렉션은 심플하면서도 매우 여성스러운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필터와 천연 코르크, 알루미늄 호일, 나무껍질에서 채취한 인피섬유, 고무, 합성 스폰지 등이 질 좋은 가죽 및 안감과 만나 멋진 컬렉션으로 탄생했다. 이 컬렉션의 가방들은 평상복부터 드레시한 이브닝웨어까지 언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이다. 질라의 독특한 핸드메이드 가방은 전 세계 곳곳의 편집 매장에서 미화 480 달러 정도에 판매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질라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via Cool hunting

## Design Now 04 Social / Culture trend

##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는 도쿄의 은행

2010.10.12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디자인뉴스

일본 도쿄의 스가모 신킨(Sugamo Shinkin) 은행은 회색 일색인 단조로운 고층 금융회사 건물들과 차별화 되도록 엄격하고 근엄하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는 분위기를 택했다.

희고 깨끗한 건물 외벽을 선명한 색색의 창으로 물들인 이 은행은 엠마누엘 무호 아키텍처 + 디자인(emmanuelle moureaux architecture + design)에서 설계했다. 이 건축사무소는 프랑스 출신 인테리어 디자이너이자 건축가인 엠마누엘 무호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모토인 "행복을 위한 즐거움"이라는 정신이 건물 내부 컬러에도 잘 반영되어 은행의 전형적인 딱딱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스가모 신킨 은행 내부. 출처: TAXI



스가모 신킨 은행 전경. 출처: TAXI

via TAXI

## Design Now 05 Social / Culture trend

## 리바이스(Levi's) 팝업 워크숍: 지역공동체와의 콜라보레이션

2010.10.14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바이스'는 한물간 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려움을 딛고 이들은 현재 다양한 캠페인을 선보이며 다시 한 번 호조를 띄고 있다. 약 10주간 뉴욕에서 진행되는 '리바이스'의 사진 워크숍은 사진만이 지닌, '별다른 기술 없이 누구나 찍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재생산할 수 있다는 민주적인 특성'에 주목하는 한편 얼마나 사진이 도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리바이스 프로젝트의 수석 카츠는 "노력한 만큼 사람들로부터 신뢰라는 대가를 얻기 마련이다"라며 "나에게는 절대로 변치 않는 근본적인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브랜드들은 자신들이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한 그룹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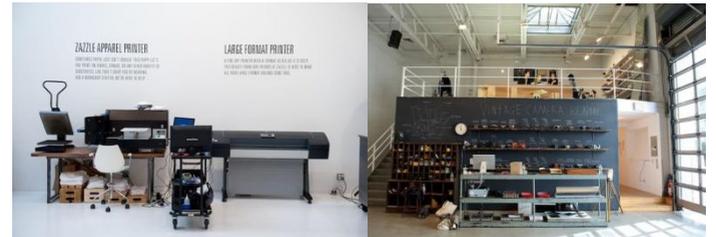
'리바이스'의 성공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을 핵심 가치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리바이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티스트, 지역공동체, 비영리단체들에게 브랜드를 개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품 및 카메라 관련 제품 판매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금을 뉴욕 소재의 자선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리바이스'의 이벤트는 뉴욕에서 2010년 12월 18일 까지 계속된다.

via Cool Hunting



리바이스 사진 워크숍의 스튜디오 내부 전경. 출처:Cool Hunting



프린팅 센터(좌)와 빈티지 카메라 대여 공간(우) 출처:Cool Hunting

## 인스턴트 방공호 콘크리트 캔버스 쉘터(CCS) 출시

2010.10.15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영국 소재의 제조업체 콘크리트 캔버스(Concrete Canvas)는 최근 자사의 설비용품 라인에 '콘크리트 캔버스 쉘터(CCS: Concrete Canvas Shelter)' 라는 신제품을 하나 추가했다. 처음 출시했던 콘크리트 직물(Concrete Cloth)과 동일한 컨셉을 기반으로 한 콘크리트 캔버스 쉘터는 원하는 형태로 조립한 후 물에 반응시키면 견고해지는 콘크리트/섬유 혼합물을 사용해 제작되었다.

이 제품이라면 누구든지 단시간 내에 콘크리트 천을 적합한 형태로 조립해 텐트 대용의 튼튼한 방공호를 만들 수 있다. CCS25 모델은 별도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2인이 1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후 물에 소재를 적시면 조적이 팽창하면서 24시간 내에 강력한 쉘터가 완성된다. 유연하고 보관이 용이한 천 묶음에서 방화, 방수, 방탄 쉘터로 변하는 이 특수섬유는 특히 자연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흙이나 모래, 눈으로 덮으면 더욱 강력한 단열 및 보호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완성된 구조물의 입구에는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기존 천막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이 가능하다.

CCS는 제품수명이 최소 10년으로 반영구적인 동시에 무엇보다 즉석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산업용 또는 군용기지로 매우 적합하다. 신속하게 안정성 있는 개인용 주거시설이나 창고를 설치할 수 있고, 조립 가능한 디자인 덕분에 연결방식에 따라 내부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자연재해를 겪은 난민수용시설이나 의료시설로 사용된다면 이 제품은 구호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설치된 CCS의 내부(상)와 외부(하). 출처:Cool Hunting

via Cool hu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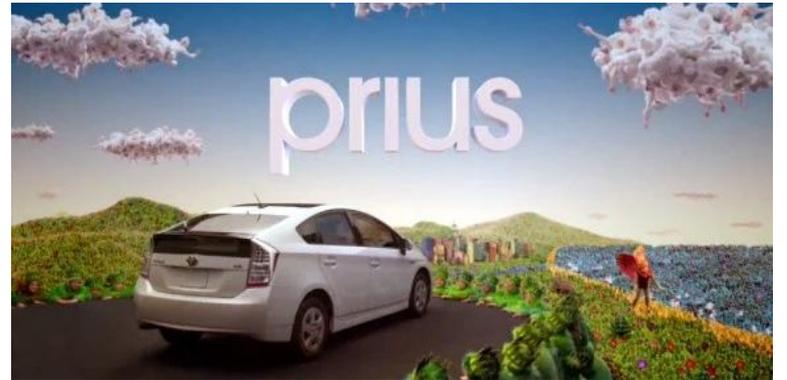
## Design Now 07 Market trend

## 토요타 '프리우스', 브랜드로 승격

2010.10.19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새로운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가 연이어 출시됨에 따라, 토요타(Toyota)는 자사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Prius)가 점차 수많은 유사 컨셉의 차량들 속에서 빛을 잃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토요타는 4인승 버전의 새로운 모델들을 라인업에 추가하여 프리우스를 렉서스(Lexus), 사이언(Scion), 토요타(Toyota)를 잇는 4번째 브랜드로 승격시킬 계획이라 전해진다.

2012년 말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해진 새로운 프리우스는 "마이크로밴"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 모델의 티저 영상이 현재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토요타의 영업 담당 간부 돈 에스몬드(Don Esmond)는 신제품에 대해 "프리우스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면서도 보다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며,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델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토요타 프리우스 2010년 TV광고 "하모니(Harmony)" © Toyota USA

자동차 딜러들은 프리우스 판매에 있어서의 제약 중 하나는 프리우스의 플랫폼이 오직 소형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토요타는 프리우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프리우스는 1997년 4인승 하이브리드 세단으로 처음 출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2백만 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 여전히 하이브리드카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프리우스 판매량은 공급에 있어서의 제약과 휘발유 값 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휘발유 값은 1갤런(gallon: 약 3.78리터) 당 미화 2.50달러에서 3 달러 사이로 떨어져, 이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비슷한 사이즈에 기존의 동력방식 엔진을 사용하는 세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리우스에 돈을 지불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올 가을 또 다른 친환경 차량 모델인 시보레 볼트(Chevy Volt)와 닛산 리프(Nissan Leaf)의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프리우스는 더 이상 친환경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의 중심에 서기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토요타는 적어도 이번 출시 소식을 통해 프리우스 팬들에게 새로운 화제거리를 안겨주기를 기대한다.

## Design Now 08 Social / Culture trend

## 개발도상국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비영리 디자인기업 캐터펄트(Catapult)

2010.10.21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캐터펄트 디자인(Catapult Design)은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교육가 협력단체이다.

이 기업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제 3 세계 수 십억 인구가 직면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간결하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혁신의 천국이라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공수된 인재들이다. 중앙아메리카 시골에 풍력발전시설을 도입하고 척박한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부족을 해소하는 등, 약 2년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이들이 이룩한 성과는 괄목할 만 하다.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다. 예를 들어 바이오라이트(BioLite)가 개발한 조리용 스토브는 연료 연소 시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동시에 이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휴대폰과 같은 소형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끔 고안되었다. 수백 만의 사람들이 대충 만들어진 저급한 스토브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있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통신망이 깔려있더라도 기기를 충전하지 못해 전화를 이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한편, 전기가 부족한 과테말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시속 24km 정도로 부는 바람을 동력원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캐터펄트 디자인은 이 시설을 도심 외곽지역 주민들도 비교적 충당 가능하다고 느낄 만 한 액수인 미화 100달러 선의 가격에 보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캐터펄트 디자인은 케냐와 같은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인 코마자(Komaza)와 협력하여 휴대용 빗물 저장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농민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빗물을 모아두었다가 필요 시 작물에 물을 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프로젝트로, 전기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독성 등유 램프를 대체할 고효율 LED 램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토타입으로 제작된 페달 동력 방식의 LED 램프는 현재 탄자니아 전역에 걸쳐 배포되어 있다.



바이오라이트의 무공해조리용스토브. 출처:Cool Hunting



과테말라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출처:Cool Hunting

via Cool Hunting

## X-mini 캡슐 스피커: 하이 파이 사운드를 구현하는 접이식 휴대용 스피커

2010.10.22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X-Mini 캡슐 스피커. 출처:Cool Hunting

대부분의 휴대용 스피커는 주로 풀사이즈 제품의 외형만을 작게 바꾸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왔다. 그러나 X-Mini 캡슐 스피커는 휴대가 매우 용이하면서도, 익스펜더블 우퍼가 부착되어 있어 아주 작은 크기임에도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스피커를 돌려 열면 특허를 받은 아코디언처럼 생긴 이 저음역 증폭기가 펼쳐지면서 보다 강한 공진이 구현된다.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ard) 수상작인 X-Mini 캡슐 스피커는 노트북, 휴대폰, 게임기 등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시켜 서라운드 효과를 내게끔 할 수도 있다.

이 제품 라인업에 최근 추가된 일체형 스피커 해피(Happy)는 SD/SDHC 메모리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 다른 디바이스와의 연결 없이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5종류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제품은 USB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며, X-mini 스피커 온라인 숍에서 미화 20에서 80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 중이다.

## 손쉽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규 웹사이트 '웬더플라이(Wanderfly)'

2010.10.26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웬더플라이의 웹사이트.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 Wanderfly.

'웬더플라이(Wanderfly)'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가장 적합한 여행상품을 찾아 보다 쉽게 여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공동창립자 에반 슈네이어(Evan Schneyer)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온라인상에서의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가 만족스럽지 못 했으며, "여행자들이 어디로 떠날지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이 웹사이트를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의 경우, 출발지, 일정, 예산을 입력하면 웹사이트는 자동으로 최적의 가격과 옵션을 제안하는 상품과 해당 여행지에서 가 볼만 한 곳, 그리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총망라한 리스트를 볼 수 있다. 만약 '1월 중순쯤 해변에서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4일간의 여행'과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다면, 웬더플라이는 카리브해의 섬 아루바(Aruba)의 수도 오랑에스타트(Oranjestad)나 바베이도스(Barbados)의 동쪽 해안 밧세바(Bathsheba)를 제안할 것이다.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옵션 추가 및 변경, 일정 예산 변경 등을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옵션 추가 및 변경, 일정 예산 변경 등을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비교 가능한 다수의 상품이 한 눈에 보이는 것도 이 사이트의 장점이다. 개개인에 맞춰 제공하는 풍요로운 여행지 정보도 매우 유용하다. 웬더플라이는 선택한 여행지의 뉴스와 날씨뿐 아니라,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용자의 친구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한다. 또한 직관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여행과 관련된 명언들이나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함께 소개하며 사용자들이 여행상품을 검색하는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 Design Now 11 Social / Culture trend

## 임산부를 위한 IDEO의 팔찌

2010.10.27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IDEO가 임신을 더욱 매력적인 개념으로 만들었다. IDEO는 현재 지구온난화, 시간, 음식, 출산 등을 주제로 하여 '\_\_\_에 관한 디자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여기서 소개할 프로젝트는 '출산에 관한 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이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에 주목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기능적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이 팔찌의 목적은 사람들이 미래의 어머니가 될 여성들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팔찌를 차고 있는 여성들에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등 따뜻하게 배려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디자인되었다. 다양한 톤의 핫핑크와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팔찌는 가운데에 커다란 알파벳 P(\*P for Pregnant, 임신)자가 새겨져 있어 착용자의 임신 상태를 알려준다.

IDEO의 임신 초기 여성들을 위한 팔찌. © IDEO.

via Cool hunting

## 플라스틱 폐기물을 가정용 연료로 변환시키는 블레스트 머신(Blest Machine)

2010.10.28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디자인뉴스

플라스틱 변성기술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형 블레스트 머신(Blest machine)은 그 과정을 '가정에서 시도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켰다.

발명가 아키노리 이토(Akinori Ito)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며 사용자친화적인 형태의 기기라 일컫는 이 휴대용 폐기물 처리기는 온도조절용 전기히터만을 사용해 플라스틱을 가정용 연료로 전환시킨다. 블레스트 머신은 화염 대신 전기히터를 사용함으로써, 플라스틱은 녹일 수 있지만 직접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되는 폐기물 처럼 이산화탄소나 다른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기가 부엌 조리대 위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작아 창고부터 거실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연료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토는 발명을 통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이슈를 다루어보고자 했다. 일본과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단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토양이나 바다 속에 폐플라스틱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용자들이 생활쓰레기로 부터 가정용 연료와 같은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폐기물과 재활용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최종 산출물은 여전히 결국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연소과정을 거치지만, 플라스틱을 연료로 환원시킴으로써 이를 폐기하거나 소각할 때에 비해 자연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엄청나게 감소한다. 또 다른 인상적인 이점은 사용할 연료를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어 해외에서 석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 발자국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via Cool hunting



블레스트 머신. 출처: Cool Hunting

## Trend Briefing

자세한 내용보기 :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트렌드리뷰

Z\_punkt(지펑트) 보고서 팀

# 미래시장 2020

미래시장\_01: **전력기반의 교통수단(e모빌리티)**미래시장\_02: **분산형 발전 시스템**미래시장\_03: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미래시장\_04: **재생 가능한 자원**미래시장\_05: **스마트 소재**미래시장\_06: **분산화된 생산방식**미래시장\_07: **도심농업**미래시장\_08: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미래시장\_09: **고령자를 위한 기반시설**미래시장\_10: **웹 3.0**미래시장\_11: **새로운 교육시장**미래시장\_12: **경제 피라미드의 최하위 계급(BoP)**

Z\_punkt GmbH는 전략적인 미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독일 소재의 미래예측 연구기관이자 컨설팅 기업으로, 본 보고서의 국내출판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KIDP)과 콘텐츠 제휴하였습니다

© Z\_punkt GmbH The Foresight Company  
Anna-Schneider-Steig 2, D-50678 Köln, Germany

Contact: silke loh / [loh@z-punkt.de](mailto:loh@z-punkt.de) / [www.z-punkt.de](http://www.z-punkt.de)

## Trend Briefing

## 글로벌 이슈: 미래시장의 신 성장 동력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위기상황이 아니더라도, 가능성 있는 미래 시장을 일찍 간파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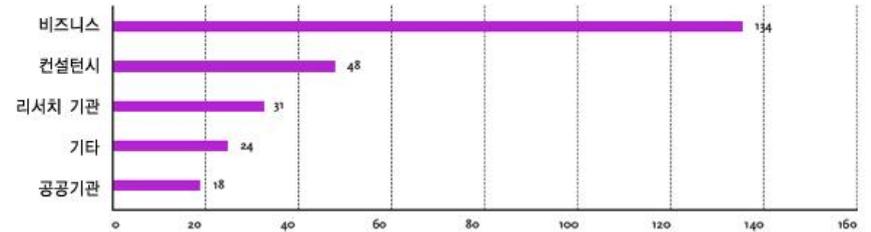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사회적 이해관계자, 정책입안자, 기업 실무자가 서로 협력하거나 지능적으로 규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격동기에는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가 및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도전과제, 그리고 선구적인 혁신이 기존 시스템의 분열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이것이 바로 미래시장을 구축할 때 직면하게 되는 난관이다. 그러므로, 미래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시장을 이끄는 주요 성장동력이 결정 될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는 대략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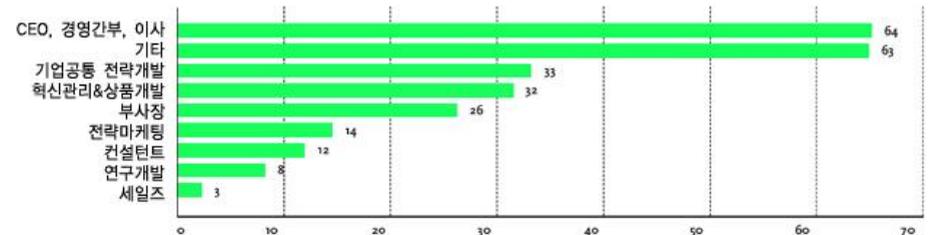
- 인류가 초래한 기후변화
- 지속적인 인구성장
- 미래 에너지 배합 구성
- 자원에 대한 접근과 배분의 문제
- 부의 정당한 재분배에 관한 사회적 이슈
-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 지능적인 규제정책 고안 및 실현

Z\_punkt는 기업과 과학연구기관, 사회적 이해관계자 그룹의 전문가들을 설문해 12개 미래시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총 255명의 응답자가 각 시장의 성장가능성, 글로벌이슈 해결가능성에 관해 평가하고 견해를 밝혔다.

### 전체 응답자 255인의 소속 별 분류



### 전체 응답자 255인의 직위 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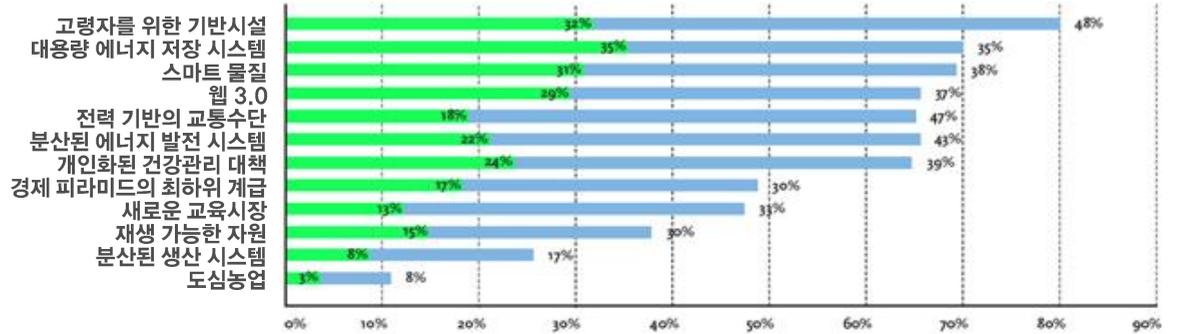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 조사결과 요약

### 12개 미래시장의 성장가능성

(선택 가능항목: 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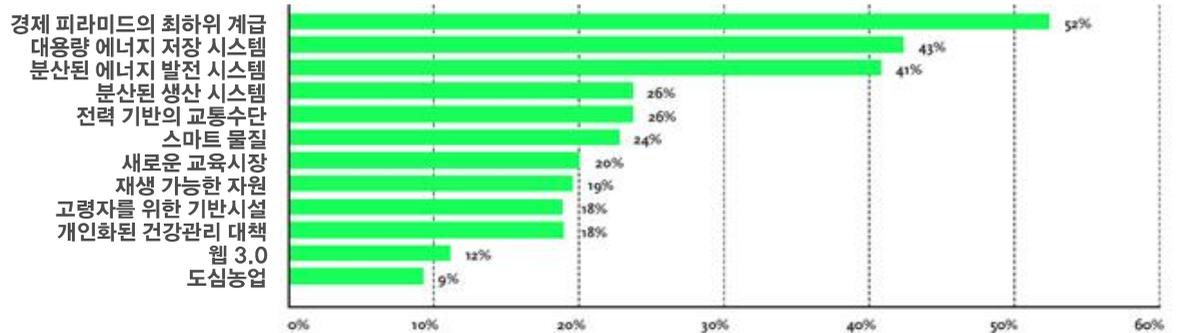
■ 높음  
■ 매우 높음



### 글로벌 이슈에 대한 12개 미래시장의 기여도

(선택 가능항목: 높음/보통/낮음/없음/역효과)

■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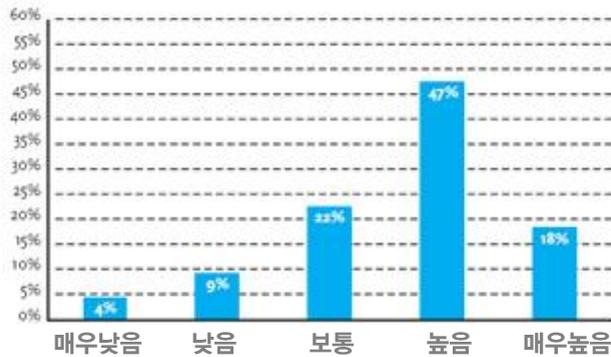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01

## 내일의 휘발유\_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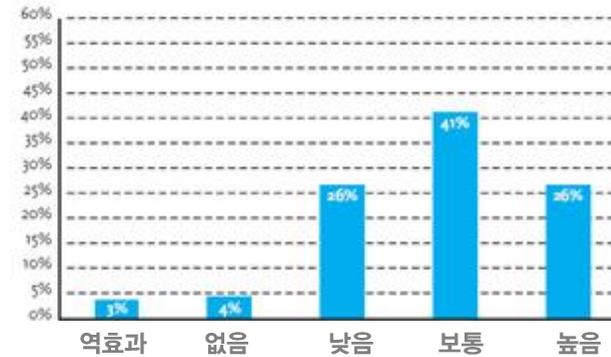
## 전력기반의 교통수단, e모빌리티

전력기반의 교통수단(e모빌리티)은 기존의 내연기관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자 화석연료를 이용한 교통수단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첫 발걸음으로 생각되고 있다. 전력기반의 교통수단은 소음이 덜하고 탄소나 분진의 배출도 없다. 만약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이들 기계를 충전한다면, 도심대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기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미래시장에는 임시 전력 저장고로도 사용 가능한 그리드에서 재충전시킬 수 있는 자동차, 국가 전역에 구축된 전기 충전소 네트워크, 스마트한 배터리 교환 컨셉, 혁신적인 지불·대여 시스템과 이에 적합한 디자인, 강력한 배터리와 전력보존 시스템의 개발 등 e모빌리티와 관련된 기반시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 · e모빌리티가 미래시장을 선점할 가능성



## · e모빌리티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1

내일의 휘발유\_전기

## 전력기반의 교통수단, e모빌리티

## · e모빌리티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자원부족
- 기후변화
- 점차 중요시 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
- 국내외 규제

## · 주요의견

- 배터리 생산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부수적인 전력에 대한 수요가 현재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로 충당되고 있음
-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됨: 새로운 복합일관 운송이라는 컨셉이 전력기반의 교통수단보다 더 중요
- 교통체증 완화와 새로운 수송 컨셉에 대한 고려가 더욱 적합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긴 배터리 충전시간
- 제한된 사용범위
- 높은 비용
- 기반시설의 부족
- 전력수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시의 자원의존가능성

## Trend Briefing 02

## 에너지 생산자가 된 에너지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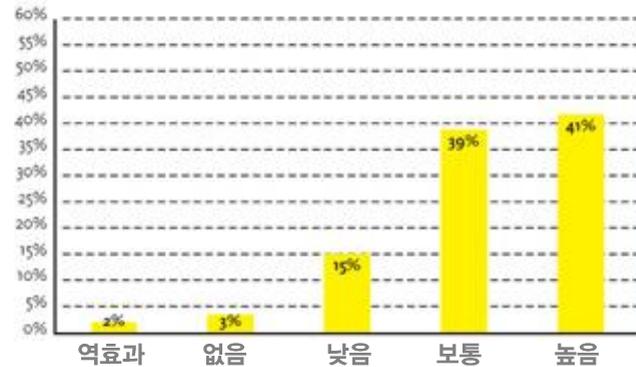
## 분산형 발전 시스템

지붕이나 지하실에서 에너지를 발전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연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타격이 적어지며, 공급부족이나 정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태양열이나 풍력을 사용하는 분산형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시킨다. 미래시장의 분산형 발전 시스템은 광전지, 소규모 난방장치, 바이오매스, 미니풍차, 그리고 이에 사용되는 동력들이 지능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 가정과 기업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과 그 구성요소의 개발을 아우른다.

## ·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 일상 생활에 도입될 가능성



## · 분산형 발전 시스템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2

에너지 생산자가 된 에너지 소비자

**분산형 발전 시스템****· 분산형 발전 시스템 시장 성장의 동인은 무엇인가?**

- 낮은 선로손실
- 중장기적 비용대비 효과
- 기후변화
- 에너지 안정성
- 에너지 가격책정의 투명성

**· 주요의견**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분산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역효과
- 해당 테크놀로지 구현에 또 다른 에너지와 자원이 소비됨
- 잘못된 시장의 장려책: 변동이 심한 생산량과 정부지원금은 시스템 규모의 축소와 생산성의 꾸준한 향상을 방해함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가정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점
- 주요 공공 에너지 관련기관의 로비
- 높은 수위로 요구되는 협력
- 해당 기술의 성숙도
- 계약 가능한 모델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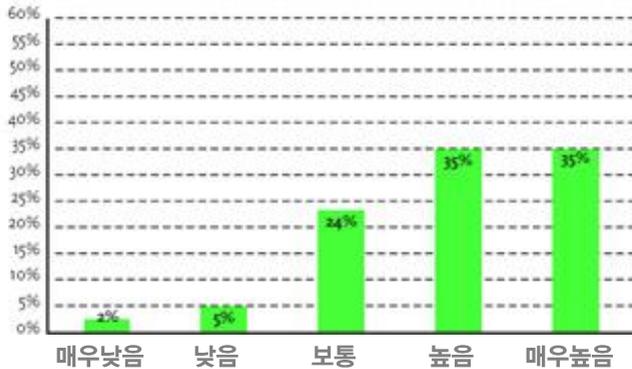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03

치솟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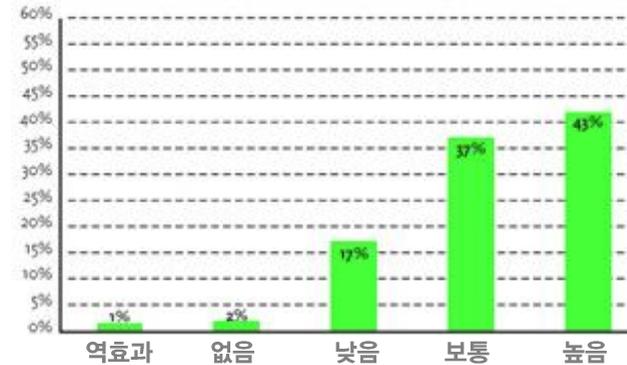
## 대용량 에너지 저장고

현존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그리드에 모이는 전력량은 당일의 날씨와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새롭고 강력한 에너지 보존 시스템은 풍력과 태양열이 기존 발전소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고 (high capacity energy storage)'라는 미래시장은 전기, 열 에너지의 사용과 보존을 위한 테크놀로지, 시스템, 서비스를 포함한다.

·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성장 가능성



·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3

치솟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 대용량 에너지 저장고

### ·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 관련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전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지향하는 추세
- 재생가능한 자원 사용의 증가
- 국가지원금, 보조금
- 분산, 개인화된 에너지 생산

### · 주요의견

-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현재의 배터리 솔루션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고비용의 에너지 보존 시스템
- 기존 에너지원과의 가격차
- 에너지 보존 시스템의 환경적 영향
- 유지보수 관련 엄격한 필요조건

## Trend Briefing 04

##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식물성 자원

## 재생가능한 자원

연료, 열, 전기는 콩, 포도씨, 옥수수, 또는 사탕수수 등에서 만들어진다. 제조과정에서 플라스틱이나 기타 화학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식물성 원료가 사용되는 식물성 자원은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낮기 때문에 우리 미래 에너지 조합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재생가능한 자원'과 관련된 미래시장은 식물성 원료의 개발과 가공 등을 포함한다.

## · 재생가능한 자원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 · 재생가능한 자원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4

##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식물성 자원

## 재생가능한 자원

## · 재생가능한 자원 관련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심화되는 자원고갈
- 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
- 바이오 연료가 각광받는 추세
- 국가지원금, 보조금

## · 주요의견

- 비료, 작황, 운송은 환경에 해를 끼침
- 전용면적 및 가격인상 문제로 식료품 생산업체와의 경쟁이 예상됨
- 단일재배로 생태계에 악영향
- 물 부족, 토양 파괴, 산림파괴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에너지 효율성
- 기타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저해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제한적인 작물재배 가능지역
- 식료품 생산업체와의 경쟁
-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기존 에너지 공급원의 비용
-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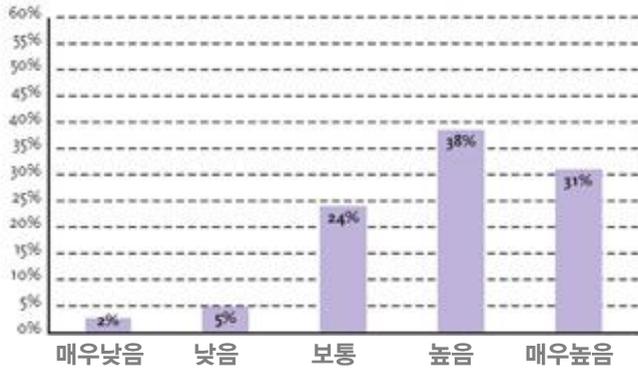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05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해지는 소재

## 스마트 소재

버려진 후 3주 안에 바이오매스로 전환되는 소재, 패키징 및 주거용 고도방열재, 태양열 셀이 입려진 호일, 자가세척 및 치유능력을 지닌 머드가드 등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의 제품과 소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스마트 소재'와 관련된 미래시장은 '스마트'라는 특성을 지닌 혁신적인 재료의 사용과 개발을 포함한다.

· 스마트 소재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 스마트 소재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5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해지는 소재

## 스마트 소재

### · 스마트 소재 관련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에너지 절약 가능성
- 제품 개선에 있어서의 크나큰 기회
-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혁신

### · 주요의견

- 요요현상 발생위험: 자원 소비총량의 증가
- 부분적으로는 위협요소가 불투명
- 스마트 디자인이 고성능 방열재를 개발하는 것보다 중요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높은 초기비용
- 높은 연구개발비 지출
- 제조과정의 대부분이 새로운 재료의 사용에 무지한 상태

## Trend Briefing 06

소비의 현장으로 회귀하는 생산

## 분산화된 생산방식

제품이 소비되는 곳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운송비와 물류 트래픽을 적절하게 낮추고 소비자 개개인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제품과 서비스간의 논리적인 연계성을 추구할 수 있다. '분산화된 생산방식'을 위한 시장은 점차 폐쇄적인 환경의 새로운 경제구도를 촉진시킨다. 이는 개인맞춤형 상품의 생산과 함께 소비현장 가까이에 소규모의 유연하고 고도로 기술진화된 공장을 설립해 지역화된 제조업으로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 · 분산화된 생산방식의 성장 가능성



### · 분산화된 생산방식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6

소비의 현장으로 회귀하는 생산

## 분산화된 생산방식

### · 분산화된 생산방식과 관련된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물류이동 시 발생하는 커다란 환경적 영향
- 새로운 화물 컨셉
- 운송비
- 개인화라는 메가트렌드
- 오픈이노베이션과 클라우드소싱 추세
- 3D 프린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조기술의 출현

### · 주요의견

- 원자재의 분산배송으로 총 물류이동량이 증가할 것임
-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동할 뿐(실업의 문제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겨가는 것처럼)
- 중요한 것은 분산화된 생산이 더 자원소모적이라는 것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너무 낮은 현재의 운송비
- 업계의 로비
- 높은 투자 대비 낮은 수익
- 관련 기술의 성숙도
- 소비자들의 참여(지역소비를 매우 활발히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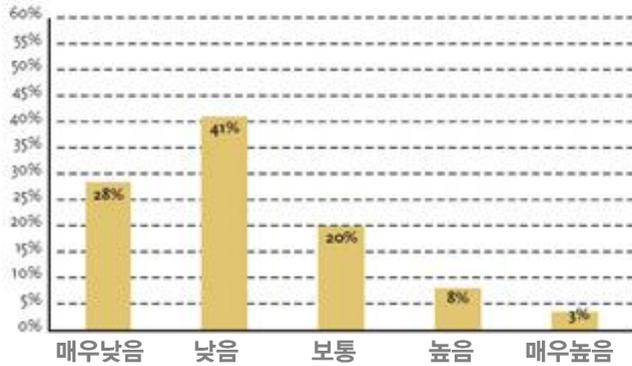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07

## 도시 속 농경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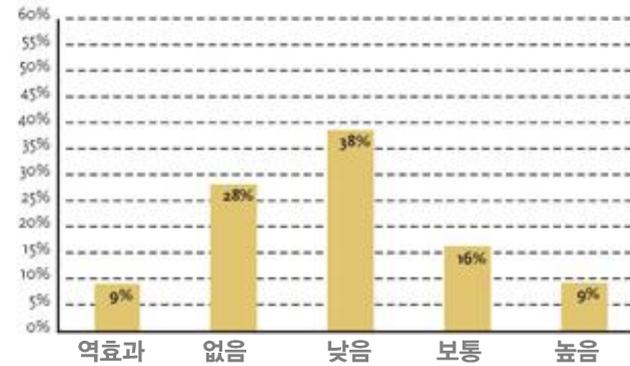
## 도심농사

거대도시의 출현과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식품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농가와 경작지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어떤 지역은 농사가 불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도심농사가 도시인구에 더욱 안정적인 식품공급수단이 될 것이다. '도심농사'와 관련된 미래시장은 수직농법을 위해 특수 설계된 건물에서의 도심 및 수도권 작물재배, 지역 특화작물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

## · 도심 식료품 생산이 도입될 가능성



## · 도심 농업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7

## 도시 속 농경문화

## 도심농사

## · 도심농업과 관련된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운송비 절감 가능성
- 기존 작물 재배지의 점진적 황폐화
- 자급자족의 필요성

## · 주요의견

- 도심지의 환경오염물질
- 주거 및 상업 공간의 부족
- 무질서하게 뺏어나가는 도심외곽지역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주거공간과의 대치
- 투자대비 효과
- 현재의 너무 낮은 운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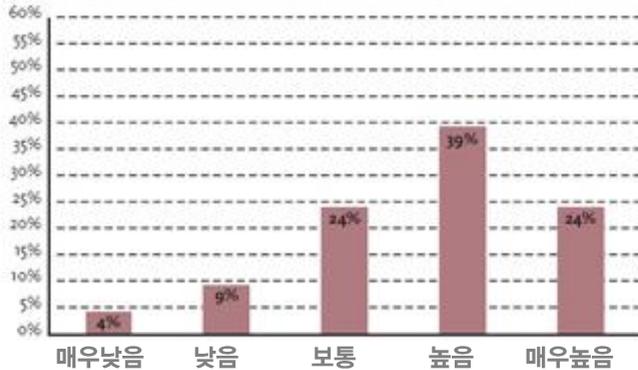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08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

##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

모든 이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건강이라는 가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빈약한 국고와 부실한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 과 관련된 미래시장은 기존의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헬스 모니터링 서비스부터 DIY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에 필요한 모든 제품,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의 성장 가능성



·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8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

##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

## ·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과 관련된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가
- 건강에 대한 인식 향상
- 인구구조의 변화
- 개인화 트렌드
- 기술개발

## · 주요의견

-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위한 솔루션 부재
- 헬스케어에 대한 윤리적인 평가가 중요
- 이원적 의료체계: 오직 교육받은 계급만이 평가할 수 있음
- 헬스케어의 개선보다는 상품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환자 부담금액 증가
- 가계소득 감소
- 용인되는 정당한 인센티브 제도
- 해당 이슈의 복잡한 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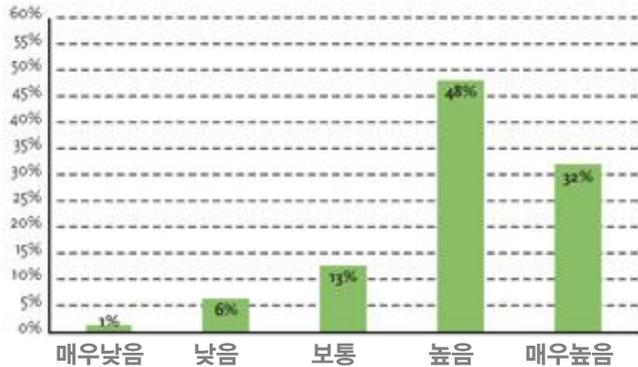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09

## 고령인구를 위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 고령자를 위한 기반시설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자를 위한 새롭고 유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주거생활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미래시장은 단순히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 설립 등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 및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서비스 솔루션의 개발과 같은 기존 기반시설의 재구축을 의미한다.

## · 고령자를 위한 기반시설의 성장 가능성



## · 고령자를 위한 기반시설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09

## 고령인구를 위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 고령자를 위한 기반시설

## · 고령자를 위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인구구조의 변화
- 노령인구의 높은 구매력
- 뉴 올드(새로운 노령인구 계급)의 니즈

## · 주요의견

- 부유하고 아이가 없는 서양지역에서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글로벌 이슈는 오히려 인구과잉과 더 높은 관련이 있음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인구감소
- 관리/요양 부문의 낮은 급여 수준
- 사람들의 자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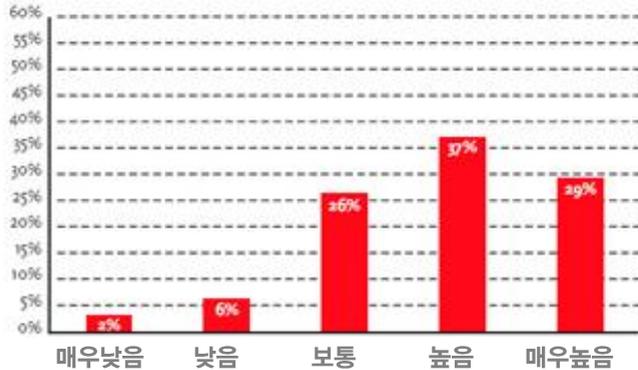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10

## 온라인 세계와 일상생활의 결합

## 웹 3.0

인터넷 상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미처 체계를 잡을 틈도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래 인터넷 유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 '웹 3.0' 미래시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야기하는 시맨틱 테크놀로지, 모바일 인터넷, 창의적인 디스플레이 방식의 융합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를 통합하는 새로운 방식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 · 웹 3.0의 성장 가능성



## · 웹 3.0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10

## 온라인 세계와 일상생활의 결합

## 웹 3.0

## · 웹3.0과 관련된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디지털 네이티브 인구의 증가
- 혁신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
- 효율성 증대 가능성
- 기술예찬론자의 증가

## · 주요의견

- 데이터의 잘못된 취득과 사용
- 엄청난 자원소비와 매우 빠른 제품주기
- 기반시설에 대한 높은 지출
-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기술적 적합성에 대한 고려 배제
- 사회적 격차 문제를 심화시키는 정보격차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웹 2.0에 비해 향상된 부가가치 존재여부에 대한 의구심
- 원자재 및 자원 관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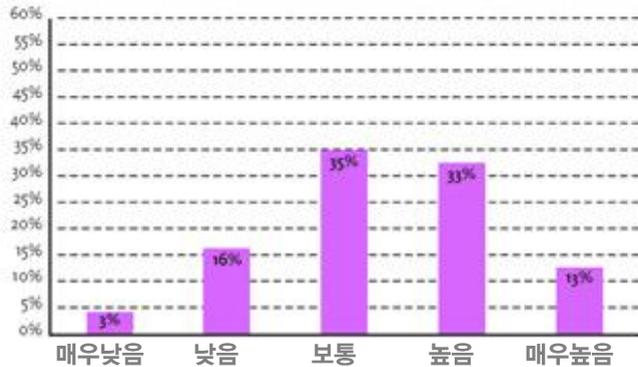
## Trend Briefing 11

더욱 유연하고 인터랙티브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교육

## 새로운 교육시장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쇠락하는 교수법과 경직된 학교 교육제도를 고려해볼 때, 교육 분야에서의 엄청난 변화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났어야 할 일이다. '신교육'과 관련된 미래시장은 공립 및 사립교육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두뇌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거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고 학습과 업무활동에 대한 인터랙티브한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예시로는 기존 교육시설의 영향범위를 넘어선 혁신적이고 사유화 된 교육구조 및 제도의 개발과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환학습, 공동체, 컨셉의 개발 등이 있다.

### · 새로운 교육시장의 성장 가능성



### · 새로운 교육시장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11

더욱 유연하고 인터랙티브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교육

## 새로운 교육시장

### · 새로운 교육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교육/학습 효력의 반감기 감소
- 자본이 부족한 공공교육제도
- 새로운 교육 관련 포맷과 플랫폼
- 지식전달에 있어서의 혁신 향상
- 교육 매개체로서의 인터넷

### · 주요의견

- 사회적 학습경험의 손실
- 하위계층의 소외 가능성 증대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문화경제적 갈등 심화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높은 가계비용부담
- 교육정책과 교육체계

## Trend Briefing 12

원조를 대신한 경제적 자립 장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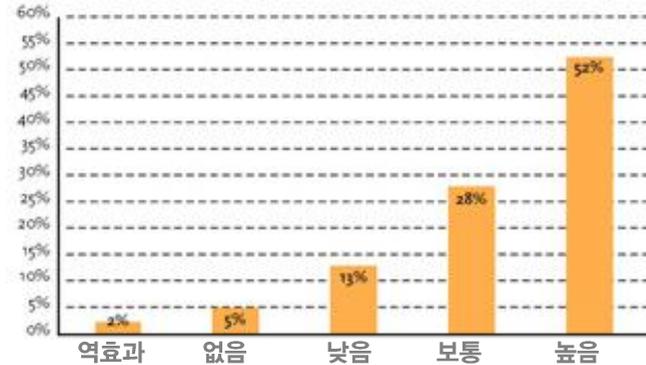
## 경제 피라미드의 최하위 계급 (BoP)

'경제 피라미드의 기반(BoP: Bottom of the Pyramid)' 이라 불리는 하루 2 달러로 생활하는 수십 억의 저소득층 인구야말로 간과해서는 안 될 시장이다. BoP라는 개념은 중장기적 빈곤감소와 자영업 이익창출 간의 결합을 추구한다. '피라미드의 최하위 계급' 과 관련된 미래시장은 신흥개발도상국 인구나 비즈니스의 니즈충족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적합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련 제품, 서비스, 솔루션의 개발을 포함한다.

· BoP 시장의 성장 가능성



· BoP 시장의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Trend Briefing 12

원조를 대신한 경제적 자립 장려

## 경제 피라미드의 최하위 계급 (BoP)

### · BoP 시장 발전의 동인은 무엇인가?

- 거대한 마케팅적 가능성
- 타겟 그룹의 규모
- 개발도상국의 엄청난 수요
- 높은 지속가능성
-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트렌드

### · 주요의견

- 요요현상: 적정 솔루션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원 소비를 야기
- 성장 패러다임에 미치는 영향 미비
- 독점기업들의 시장장악
- 선진국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개발을 위한 자원
- 현재의 경제모델 하에서 에너지와 자원소비, 환경 문제 등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의 확산은 기존 문제를 심화시킬 것

### · 시장개척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정치적 장애요인
- 부족한 기반시설과 세일즈 네트워크
- 매우 미미한 개발도상국의 자본

## Trend Briefing

### 결과분석 및 향후 전망

앞서 제시한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이번 리포트에서 채택된 12개 미래시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리포트가 미래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시각을 제공하였기를 바란다.

####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

고령인구를 위한 기반시설 관련 시장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설문참여자의 80%가 이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거나' '높다'고 답했다. 이 시장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결과였다. 또한 설문결과는 미래를 주도할 6개의 시장에 대한 예측도 보여주었다.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대용량 에너지저장 시스템, 스마트 소재, 웹 3.0, 전력 기반의 교통수단, 분산형 발전 시스템, 개인화된 보건의료활동을 '매우 높거나'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했다. 8위를 차지한 BoP 시장도 응답자의 약 50%가 '매우 높거나'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흥미롭게도 이 시장은 글로벌 이슈 해결에는 가장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글로벌 이슈 해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되는 시장

설문 응답자들에 따르면, 1위는 BoP 시장이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 이 카테고리의 2, 3위를 차지했다. 각 43%와 41%의 응답자가 이들 시장의 글로벌 이슈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척도라 할 수 있다.

## Trend Briefing

## 기타 미래시장

**로보틱스:** 서비스 산업용 또는 가사, 요양, 재봉 등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나노테크놀로지:** 무향무취 의복, 굽힘방지 유리 등 혁신적인 기능을 지닌 재료와 제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원자 또는 분자

**바이오테크놀로지:** 제품생산을 위한 미생물의 기술적 활용

**바이오닉스:** 스마트 설계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건축 등 자연에서 착안한 요소를 기술적 솔루션으로 전환

**인공생물학:** 자연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생태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기기간통신(M2M):** 기계와 기술적 시스템 간의 직통 커뮤니케이션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 개인맞춤화된 대량생산

**폐기물/지속가능성 관리:** 매립지 생성과 고도로 복잡한 쓰레기 재료를 관리하는 폐쇄형 루프 시스템

**수자원 관리:** 수자원 관리와 분배를 위한 스마트한 컨셉

**서식지로서의 해양:** 에너지 발전, 자원 발굴, 식량 생산을 위한 해양환경

**로테크 제품:** 자전거, 빗물 저수, 스스로 만든 부차적 활동영역의 사용 등 의식적으로 비싸고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지양하고 단순하고 적합한 원리원칙을 추구하는 것

**레저 시장:** 익스트림 스포츠, 탤런트 쇼, 멀티유저 게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우주여행 등 레저, 게임, 자기계발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도심 이동성 관련 컨셉:** 개인화 되고, 서비스 집약적이며 IT의 차용이 두드러지는 통합적인 이동 솔루션 및 서비스

**식품 시장:** 농산물, 기능성 식품, 유전자 조작 식품, 예방의약품 등을 포함한 컨버전스 마켓

**스마트한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 및 거대도시로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개발과 관리

**서식지로서의 우주:** 외계로 가는 첫 걸음이자 원자재 공급원으로서의 달

**보안 시장:**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보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솔루션 개발

**창의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경제:**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해진 기간 동안의 협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십, 새로운 동맹관계 등 창의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경제 원칙에 따라 구성된 경제활동 분야 개발과 개선

Design Inside



THE  
LONDON  
DESIGN  
FESTIVAL

런던디자인페스티벌

2010. 09. 18-26

자세한 내용보기: [www.designdb.com](http://www.designdb.com) ⇒ 디자인트렌드-전략 ⇒ 기획포커스

© thomas heatherwick

## Design Inside 01

THE  
LONDON  
DESIGN  
FESTIVAL

## The London Design Festival 런던디자인페스티벌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하는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은 이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주요 문화상업 이벤트로 자리잡았다. 2010년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번 행사의 허브 역할을 한 V&A(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에서부터 영국과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디자이너 및 기업들의 작품으로 가득한 곳곳의 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시내 전역에 걸쳐 더욱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국내 우수 디자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00% 디자인 런던, 텐트 런던을 포함한 주요 전시행사에 디자인전문기업과 차세대디자인리더들의 우수 작품을 소개했다.

우. Kram/Weisshaar(크람/베이사)와 Audi(아우디)의 협업으로 탄생한 2010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의 트라팔가 광장 인스톨레이션 OUTRACE.  
좌. Jean Nouvel(장 누벨)이 설계한 2010 서펀타인 갤러리 파빌리온.



## Design Inside 02



© Susan Smart Photography



1. V&A(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에 설치된 Stuart Haygarth(스튜어트 헤이가스)의 Framed.
2. 제 4회 SIZE+MATTER에서 선보인 Paul Cockshedge(폴 콕세지)의 작품 Drop.
3. 2010 런던 디자인 메달을 수상한 Thomas Heatherwick(토마스 헤더윅)의 작품 Spun Seats.
4. Neville Brody(네빌 브로디)가 총감독한 2010안티 디자인 페스티벌 전경.

## Design Inside 03

100%design<sup>®</sup>  
london

1995년 런던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을 맞이하는 100% 디자인 런던은 세계 각국의 바이어, 머천다이스를 포함해 전문적 식견을 지닌 관람객이 주를 이루는 디자인 비즈니스 전문전시회로, 디자이너와 제조업체간 디자인을 교류하고, 현장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업적 영향력이 크다. 비즈니스 측면뿐 아니라 매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세계 3대 디자인전시회 중 하나인 100% 디자인 런던은 행사 주최측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세계 각국이 자국의 디자인 역량과 정체성을 홍보하는 국제적인 디자인 프로모션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매년 약 25 개국에서 400여 개 이상의 디자인기업이 참가하고 2만 6천여 명의 바이어가 관람하는 거대 디자인 트레이드 쇼이며, 아시아에서는 현재 한국이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프랑스 등 7개국에서 국가관을 운영한 데 비해 2010년에는 이탈리아를 포함 12개 국가로 확대되며 디자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 올해 한국관에서는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과 한지, 한글 등을 「모던 코리안 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연출을 통해 타 국가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렸다.



전시 외에도 주요 언론, 바이어 및 디자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국디자인의 비전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100% 디자인 런던 한국관 오프닝 리셉션', 코트라(KOTRA) 무역관을 주축으로 유럽 전역 바이어들과의 1:1 매칭 상담을 주선하는 '디자인 B2B 매칭 프로그램'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 Design Inside 04

## · 한국관 출품작



디자인바이러스의 메시지큐브램프와 타래조명. 실타래를 모티브로 한 타래조명은 서울을 대표하는 10가지 서울색으로 제작해 한국 고유의 색감으로 동양적인 감성을 담았다.  
[www.design-virus.com](http://www.design-virus.com)



비디라이팅의 조명. 사랑을 위한 성냥과 한 순간. 비디라이팅은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하는 빛을 가진 사물을 디자인한다.

[www.parkwoosung.com](http://www.parkwoosung.com)



태원전기산업의 티티와LP-33 미니멀, 모던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을 지닌 동양적 스타일의 조명이다.

[www.maltani.co.kr](http://www.malt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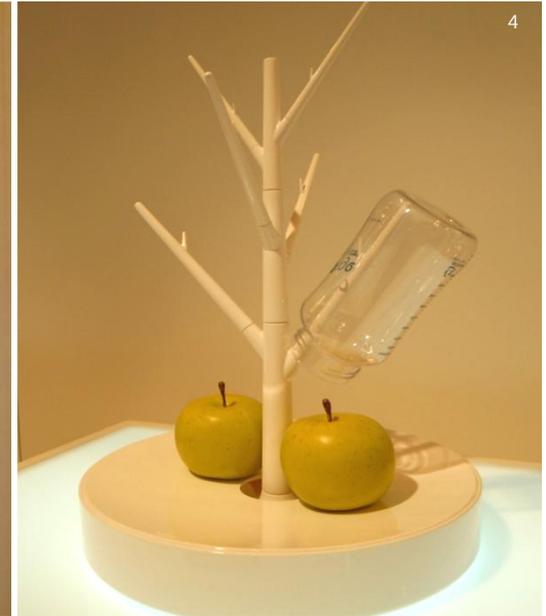
## Design Inside 05



1



3



4



2

1. 썬인터내셔널의 영상콘텐츠를 건축조명에 접목시킨 IMAGE-LED 조명. 예술과 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명 분야 개척을 추구한다. [www.zcell.kr](http://www.zcell.kr)
2. 심플아이디어의 인테리어 생활소품. 9의 디자이너가 모여 만든 그룹으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감성을 모아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든다.
3. 디자인스킨의 아동용 완구, 버쓰데이의 친환경 디자인 소품컬렉션. [www.designskin.net](http://www.designskin.net), [www.hellobirthday.com](http://www.hellobirthday.com)
4. 아이클루 디자인의 호비트리 유아 젓병 건조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립과 분해가 쉬워 휴대성과 공간 효율성이 높다. [www.icluedesign.com](http://www.icluedesign.com)

## Design Inside 06



1. 차세대디자인리더 10기 김상훈의 Phenomena.



2. 차세대디자인리더 8기 차일구의 Trace of time.



3. 차세대디자인리더 10기 김채영의 Knitted Chair.



## TENT LONDON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The Old Truman Brewery)에서 열린 텐트 런던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가장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은 농치지 말아야 할 행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프로페셔널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획기적인 디자인 쇼와 더불어 10여 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디자이너, 제조업자, 기업들이 참가해 최첨단 컨템포러리 인테리어 제품과 디지털 설치작업을 선보이는 가운데 차세대디자이너더 정명택과 정혜림이 각각 출품해 한국 신진 디자이너의 참신한 감각과 가능성을 세계시장에 알렸다.

## Design Inside 08



1



2



3



4



5



6



7



8

- 1, 2. The Old Truman Brewery(올드 트루먼 브루어리) 텐트 런던 행사장.  
 3. 차세대디자인리더 10기 정혜림의 PB-01.  
 4. 차세대디자인리더 8기 정영택의 Expect the Unexpected.  
 5. Liam Hopkins(리암 홉킨스)의 Bravais Armchair.

6. Gareth Neal(가레스 닐)의 Louis.  
 7. 컨템포러리 텍스타일 아티스트 Anne Kyro Quinn(앤 키로 퀸)의 부스.  
 8. Jjam Qurators Collective(잼큐레이터스 콜렉티브)의 기획전 Everyday Delights.

## Design Inside 09

## 기타 전시행사

이외에도 차세대디자인리더 이성용과 김 황이 사치 갤러리(Saachi Gallery)와 안티디자인페스티벌(Anti Design Festival)에서 작업을 선보였다.



## 이성용의 플라이튜브

이성용은 종이튜브 제조장식에 나무합판 강화법을 접목해 개발한 재료인 플라이튜브를 사용한 스톨을 제작했다. 이 소재는 가볍고 정밀하면서도 강한 성질을 지닌 나무이기 때문에 가구나 제품은 물론이고 건축용 자재로써도 사용이 가능하다.

## 김 황의 스타피자

김 황은 2년의 리서치 기간을 거쳐 북한 인민의 입맛에 친숙한 피자 레시피를 개발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 배포한 프로젝트를 전시했다. 스타피자는 하나의 인터랙션 디자인 프로젝트로, 디자인이 물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그 의미만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